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12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 (4)

『죄 죽이기』 제12장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4)", 인쇄 158~173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여덟 번째 지침을 내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죄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묵상으로 늘 낮아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묵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분과 나 사이의 무한한 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입니다. 이어서 “복음 시대의 우리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는 두 반론을 다룹니다. 오웬은 복음의 지식이 율법 시대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뒷모습”뿐이라고 답합니다. 끝으로 이 깨달음이 영혼을 거룩한 외경심으로 채우고, 그런 마음에서는 죄악된 욕망이 자라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 절별 정리

📜 1. 여덟 번째 지침: 나를 낮추는 묵상을 하라

오웬은 지금까지 죄 죽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차례로 제시해 왔습니다. 죄 죽이기(mortification)는 신자가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의 힘을 꺾고 약하게 만들어 가는 평생의 싸움입니다. 이 장에서 내놓는 여덟 번째 지침은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비천한지 깨우쳐 주는 묵상을 활용하고 실천하라”입니다. 목표는 한 번 크게 낮아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늘 낮아져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으로 오웬은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입니다. 이 장의 나머지는 이 두 묵상을 풀어내는 데

1. 여덟 번째 지침은 '낮아지게 하는 묵상'이다
2. 목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늘 낮아진 상태
3. 묵상 거리 1: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무한한 거리
4. 묵상 거리 2: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

📜 2.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의 무한한 거리

하나님의 엄위하심(위엄과 두려울 만큼의 크심)과 탁월하심을 많이 묵상할수록 “나는 보잘것없고 죄된 존재”라는 인식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오웬은 이것이 내재하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를 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는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활동하는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그 뿌리를 친다는 것은 교만을 꺾는다는 뜻입니다. 예로 욥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뵙게 되자 스스로를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옛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의 사람을 메뚜기, 헛것, 저울의 티끌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일 때 죄는 우리를 속여 목적을 이루기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1. 하나님의 크심을 볼수록 내 작음이 보인다
2. 이 인식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 교만을 친다
3. 욥과 하박국은 하나님을 뵙고 무너졌다
4. 낮아진 마음은 죄에게 잘 속지 않는다

> **욥기 42:5-6**
> 하나님을 직접 뵌 욥이 자기를 낮추고 회개한 본보기
>
>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 **하박국 3: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욥기 37:22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는 직접적 진술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사야 40:12-25

하나님 앞의 사람을 메뚜기·헛것·티끌에 비유해 비천함을 보여 줌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묵상하라."

📜 3.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묵상하라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는 꽤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오웬은 잠언 30장의 고백을 솔로몬의 것으로 읽습니다)조차 자신은 짐승 같아서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모세가 그 예입니다. 모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이름, 곧 은혜 언약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오웬은 요한복음 1:18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가 바로 앞 절에서 그리스도와 비교한 모세를 특히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표현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 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모른다
2. 솔로몬도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했다
3. 경외는 '담대히 나아감'과 함께 가야 한다
4. 모세가 본 것도 하나님의 뒷모습이었다
5. 말은 많아도 아는 것은 거의 없다

> **잠언 30:2-4**
> 가장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다는 고백
>
>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 **출애굽기 34:5-6**
> 모세가 받은 최고의 계시, 곧 은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
>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 **요한복음 1:18**
> 모세를 포함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근거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4:16

(오웬의 표현이 기대는 구절) 경외와 함께 붙잡아야 할 담대한 나아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4. 첫 번째 반론: "모세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우리는 얼굴을 본다"

반론은 이렇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형과 구름과 희미한 제도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품속의 아들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드러내셨으니, 우리는 뒷모습이 아니라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웬은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뒤의 지식이 율법 아래 성도들의 지식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눈과 믿음이 우리보다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서 보이는 여건이 좋아진 것입니다. 둘째, 모세가 본 하나님도 이미 “복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을 “뒷모습”이라 부릅니다. 셋째,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12는 그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풀어 줍니다. 당시 거울은 사물의 흐릿한 형태와 윤곽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께끼처럼'(헬라어 아이니그마티) 어렴풋하게 볼 뿐입니다.

1. 복음의 지식이 율법보다 탁월함은 인정한다
2. 구약 성도의 눈이 나빴던 게 아니라 여건이 달랐다
3. 모세가 본 복음의 하나님도 '뒷모습'이었다
4. 수건은 벗겨졌어도 여전히 거울로 보듯 본다
5. 당시 거울은 흐릿한 윤곽만 비추었다

히브리서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가 4:6

밤의 그림자가 물러간 복음 시대의 밝음을 그리는 표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고린도후서 3:18

수건을 벗었지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는 핵심 본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3:12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다'는 바울 자신의 해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 5. 어린아이의 지식, 그리고 장차 얼굴로 볼 날

바울은 신약 시대 누구보다 분명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식을 어린아이의 지식에 비유하고, 그것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웬은 이 비유를 풀어 줍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의 생각이 유치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는 것을 혀 짧은 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것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영광을 직접 보고서야 들은 이야기가 절반도 안 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그분을 천분의 일도 알지 못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1. 바울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고백했다
2. 우리의 하나님 지식은 어린아이의 말과 같다
3. 하나님은 그 유치한 생각을 받아 주신다
4. '얼굴로 볼 것'은 장래의 약속이다
5. 스바 여왕처럼 직접 보면 절반도 몰랐음을 안다

고린도전서 13:9-10

지금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폐하여질 것이라는 선언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11

지금의 지식을 어린아이의 생각에 비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12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알게 된다는 약속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일서 3:2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날이 장래에 있다는 약속, 지금은 아님의 근거

>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뿐이다.”

📜 6. 첫째 이유: 하나님이 친히 "너희는 나를 다 알 수 없다"고 하신다

오웬은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지 두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은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라고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16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웬은 “볼 수 없다”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도 똑바로 못 보는 우리가 무한한 광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결론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물처럼 감각 인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내가 지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속 형상이 정당하다면 나무와 돌로 깎는 것도 정당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고백도 우리가 보거나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곧 한 본질 안의 구별되는 세 위격도 그렇습니다. 성자의 출생과 성령의 발출, 그 둘의 차이를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신비를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1. 하나님은 가까이 못 갈 빛에 거하신다
2. '볼 수 없다'는 우리가 감당 못 한다는 뜻
3. 머릿속 하나님 이미지는 마음의 우상이 된다
4. 무한·영원 같은 고백은 믿고 찬송하는 것
5.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분을 안다

>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언 30:2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고백을 다시 확인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 7. 둘째 이유: 이 땅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안다

둘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오웬은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 인상이나, 창조와 섭리를 보고 이성으로 얻는 지식은 따로 다루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지식은 너무 빈약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일이 순종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곧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는 대상에 대해 뚜렷한 상(이미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한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아는 모든 것은 거울로 보듯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자연과 양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 했다
2.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3. 믿음은 볼 수 없는 분의 증언에 동의하는 것
4. 보지 못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한다
5. 믿음으로 아는 지식은 희미할 수밖에 없다

에베소서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히브리서 11:6

하나님이 계심과 상 주심을 '믿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5:7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원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1: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베드로전서 1:8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8. 두 번째 반론: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본다"

두 번째 반론은 더 강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쳤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말합니다. 반론자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불신자나 연약한 신자는 어둠에 있겠지만, 믿음이 자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히 본다. 오웬은 이 반론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들을 공정하게 다 소개한 다음 답변으로 넘어갑니다.

1. 반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이미 다 드러내셨다
2. 신자는 빛이고 아버지와 사귐을 누린다
3. 그러니 성숙한 신자는 얼굴을 분명히 본다
4. 오웬은 반론의 근거 구절을 그대로 소개한다

요한복음 1:17-18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반론의 첫 근거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일서 5:20

아들이 참된 자를 알 지각을 주셨다는 근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고린도후서 4:4, 4:6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근거

고린도후서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 **요한일서 1:3**
>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누린다는 근거
>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 9. 답변 (1)~(4): 우리는 이미 아는 만큼도 살지 못했다

오웬의 답변은 먼저 반론의 옳은 부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에 충분할 만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은 게으름과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만큼 그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둘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받은 지식은 율법의 그림자나 다른 방법으로 얻는 지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셋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수의 신자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말하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영적으로 사용해 구원에 이르는 법을 모릅니다. 신자는 아는 것이 적더라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빛 안에서 그 지식을 봅니다. 하나님 지식은 호기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상 주시는 분에 대한 지식은 이 땅에서 순종하고 열매 맺기에 모든 면에서 충분합니다.

1. 이미 아는 만큼도 순종하지 못했다
2. 우리의 어둠은 불순종의 핑계가 아니다
3. 복음 지식은 율법보다 상대적으로 탁월하다
4. 신자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

(오웬이 빌려 쓴 표현)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고린도후서 3장

율법의 지식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비교의 근거

[1]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5]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 10. 답변 (5):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뒷모습이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한 뒤에도 오웬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작은 부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뿐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 계시의 목적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넘치는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 합당하게 예배하기에 “충분한 만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 지금의 지식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계시가 분명하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둔하고 더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말씀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지식을 지어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늘 말씀에 기대어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는 밝지만, 우리가 실제로 붙잡은 것은 적습니다.

2. 천국에서는 지금의 지식이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3. 계시는 밝아도 우리 마음이 둔하다
4. 그래서 늘 말씀에 기대어 배워야 한다

📜 11. 결론: 외경심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죄가 자라지 못한다

오웬은 이 긴 논의가 죄 죽이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짚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심과 그분과 우리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영혼은 거룩한 외경심으로 채워집니다. 외경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죄악된 욕망도 자라거나 번성할 수 없습니다. 크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 합당하지 않은 행실을 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웬은 “여러분이 상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내 본성이 그분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좁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임재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1.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외경심이 차오른다
2. 외경심 가득한 마음에서 정욕은 못 자란다
3. 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더 조심한다
4. 내가 상대하는 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 **히브리서 12:29**
>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떠올리게 하는 결론 구절
>
>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신자가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남은 죄의 힘을 꺾고 약하게 해 가는 평생의 싸움.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서 활동하는 죄의 성향.

엄위하심
하나님이 지니신,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장엄한 위엄.

외경심(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

뒷모습
출애굽기 33~34장 배경에서 온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아니라 일부만 본다는 뜻.

은혜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자기 백성 삼겠다고 맺으신 약속.

위격과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성부·성자·성령 세 인격이 서로 구별되어 계신다는 신비.

출생과 발출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이 '나오신다'는, 삼위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

믿음
오웬의 설명으로는 눈에 보이는 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증언에 동의하는 것.

복음 계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 주신 것.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여덟 번째 지침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나의 무지를 묵상해 늘 낮아져 있으라는 것이다.
- 복음 시대의 지식은 율법 시대보다 훨씬 탁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뒷모습'이다.
-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알고, 그 지식은 예배와 순종에 충분하지만 부분적이다. 얼굴로 뵙는 것은 장래의 약속이다.
- 이 깨달음은 무지를 핑계 삼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아는 만큼도 살지 못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외경심으로 채워진 마음에서는 죄악된 욕망이 자라지 못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11편 ·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 낮아지는 묵상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